



민주당 광주지역 자치단체장 당선자와 당직자들이 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분향, 참배했다. 가운데 광주시장 당선자가 분향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3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묘지를 찾아 분향, 참배했다.

광주·전남 무소속 돌풍 거셌다

광역단체장 한나라 6곳·민주당 7곳 당선

지난 2일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단체장 최종 개표 결과, 무소속 후보가 광주에서 1곳, 전남 7곳에서 당선되면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다.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에서 동구(유태명), 북구(송광운), 남구(최영호), 광산(민형배) 등 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서구청장은 무소속 전주언 후보가 승리했다.

전남 22개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목포(정종득), 나주(임성훈), 영광(정기호), 담양(최형식), 구례(서기동), 장성(김양수), 완도(김종식), 보성(정종해), 장흥(이명희), 고흥(박병중), 해남(박철환), 진도(이동진), 무안(서삼석), 함평(안병호), 영암(김일태) 등 민주당 후보 15명이 당선됐다. 그러나 여수(김충석), 순천(노관규), 광양(이성용), 곡성(허남석), 화순(전완준), 신안(박우량), 강진(황주홍) 등 무소속 후보도 7명이 당선되면서 텃밭에서의 '민주당 심판'이 이뤄졌다.

한편,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오세훈)과 경기지사(김문수) 선거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신승을 거뒀으나 부산시장(허남식), 대구시장(김범일), 울산시장(박맹우), 경북지사(김관용) 선거에서 승리한데 그치는 등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6석을 건지는데 그쳐 사실상 패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시장(송영길)과 강원지사(이광재), 충북지사(이시종), 충남지사(안희정), 광주시장(강운태), 전남지사(박준영), 전북지사(김완주) 등 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 기대 이상의 선전을 기록했다.

무소속은 경남지사(김두관), 제주지사(우근민) 등 2곳에서 승리했으며 자유선진당은 대전(염홍철)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한나라당은 82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3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자유선진당은 13곳에서, 민노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 한나라당-6곳
 - 서울시장 오세훈
 - 부산시장 허남식
 - 대구시장 김범일
 - 울산시장 박맹우
 - 경기지사 김문수
 - 경북지사 김관용
- 민주당-7곳
 - 인천시장 송영길
 - 광주시장 강운태
 - 전남지사 박준영
 - 전북지사 김완주
 - 충남지사 안희정
 - 충북지사 이시종
 - 강원지사 이광재
- 자유선진당-1곳
 - 대전시장 염홍철
- 무소속-2곳
 - 경남지사 김두관
 - 제주지사 우근민

영호남 一黨 독점 깨졌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이날 "여권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북풍'은 역풍으로 돌아왔다"며 "강원과 경남을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 안방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이날 "여권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북풍'은 역풍으로 돌아왔다"며 "강원과 경남을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 안방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유일한 승자는 국민이었다. 국민은 현 정권의 오만함을 준엄하게 심판했으며 야당에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일부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해소로 이어져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 대신, 주민과 고락을 함께해온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줬다. 북풍도, 노풍도 현명한 유권자 앞에선 순풍이 불고 있었다. 유명 정치인의 그늘도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현직'이라는 권력도 과감히 표로 평가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유권자가 제시한 것이다.

3일 오전 끝난 6·2 지방선거 개표 결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6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국민은 애초 호남과 대전을 제외하고 석권하려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한나라당에 참패의 수모를 안겼다. 비록,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겼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예상과 달리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이날 새벽까지 힘겨운 싸움을 했을 뿐 아니라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21개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강남 3구'와 중앙

구만 지켰을 뿐이다. 더욱이 텃밭인 경남과 강원지사에서 참패했다. 충청전·강원·충남·충북 등 7곳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했다. 또 야당 성향인 무소속 후보가 경남과 제주지사까지 가져갔다. 자유선진당은 대전 1곳을 챙기는데 그쳤다.

이 같은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권 내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인방인

광주·전남에서 8곳의 기초단체장을 무소속에 내주고 특히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3명 모두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는 이변을 낳은 것은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2년 후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민은 민주당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친노의 후예를 자처하고 노풍에 기대려 했던 국민참여당은 가장 주력했던 경기지사 선거에서 참패함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참패를 경험한 진보신당과 함께 당의 존폐를 걱정할 상황이 됐다. 대신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룬 지역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광주·전남에서 8곳의 기초단체장을 무소속에 내주고 특히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3명 모두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는 이변을 낳은 것은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2년 후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민은 민주당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친노의 후예를 자처하고 노풍에 기대려 했던 국민참여당은 가장 주력했던 경기지사 선거에서 참패함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참패를 경험한 진보신당과 함께 당의 존폐를 걱정할 상황이 됐다. 대신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룬 지역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광주·전남에서 8곳의 기초단체장을 무소속에 내주고 특히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3명 모두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는 이변을 낳은 것은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2년 후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민은 민주당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친노의 후예를 자처하고 노풍에 기대려 했던 국민참여당은 가장 주력했던 경기지사 선거에서 참패함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참패를 경험한 진보신당과 함께 당의 존폐를 걱정할 상황이 됐다. 대신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룬 지역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광주·전남에서 8곳의 기초단체장을 무소속에 내주고 특히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3명 모두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는 이변을 낳은 것은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2년 후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민은 민주당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친노의 후예를 자처하고 노풍에 기대려 했던 국민참여당은 가장 주력했던 경기지사 선거에서 참패함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참패를 경험한 진보신당과 함께 당의 존폐를 걱정할 상황이 됐다. 대신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룬 지역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광주·전남에서 8곳의 기초단체장을 무소속에 내주고 특히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3명 모두 두 자릿수 득표를 기록하는 이변을 낳은 것은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2년 후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민은 민주당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친노의 후예를 자처하고 노풍에 기대려 했던 국민참여당은 가장 주력했던 경기지사 선거에서 참패함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참패를 경험한 진보신당과 함께 당의 존폐를 걱정할 상황이 됐다. 대신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룬 지역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정국 대격동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6.2 지방선거의 후폭풍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히며 이어 정경길 대통령 실장도 사퇴를 표명, 여권의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 4대강 사업 중단, 대북 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3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서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자리를 빌려 사퇴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으며 오는 7일 정 대표 주재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또한, 정경길 대통령실장도 지방선

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뒤 일부 수석들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사퇴를 표명했다고 이동관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 이어 정경길 대통령실장까지 사퇴를 표명에 따라 당 지도부 교체와 청와대 인적 개

편, 개각 등 여권의 인적 쇄신 흐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와 4대강 사업 중단 및 세종시 수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결적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부도덕한 정권에 범엄한 심판을 내린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한나라당은 82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3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자유선진당은 13곳에서, 민노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한나라당은 82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3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자유선진당은 13곳에서, 민노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한나라당은 82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3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자유선진당은 13곳에서, 민노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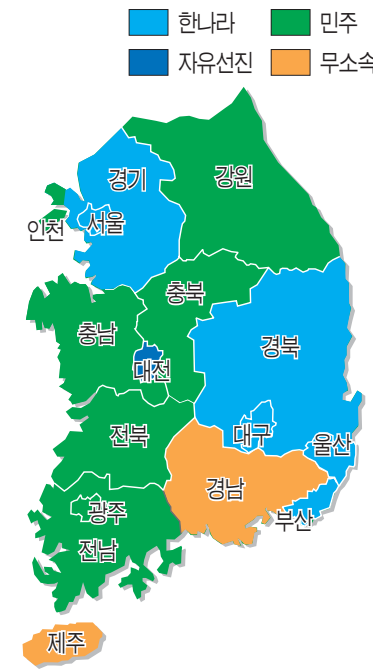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한나라당은 82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3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자유선진당은 13곳에서, 민노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한나라당은 82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3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자유선진당은 13곳에서, 민노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한나라당은 82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3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자유선진당은 13곳에서, 민노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21곳에서 승리하는 등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한나라당은 82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3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자유선진당은 13곳에서, 민노당은 3곳에서 승리했다.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야당의 전면적 통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민주당 4대강·세종시 대공세

광역단체장 정당별 분포

한나라 정몽준 등 지도부 사퇴

학고실림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내가슴 핑크리본

2010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10년을 이어온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달리는 감동적인 축제의 장에서
핑크리본의 광원 의미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0년 6월 20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5km, 10km

참가비: 1만원 *아동 5천원(단체 7천원)

기입금: K-SWISS 7777777777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ribbon.or.kr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02-22-8794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 AMORE PACIFIC